

순정이

연중 제27주일

제 1 독서 : 이사 5, 1-7
제 2 독서 : 필립 4, 6-9
복 음 : 마태 21, 33-43

“집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 놀랍게만 보인다”(마태 21, 42).

강론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 김요한 신부 / 군중 •

“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



전교(傳敎)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진리를 말하여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믿고 받들도록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바로 전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신앙인들이 전교를 소홀히 한다면 하느님을 들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입니까?

어느 분이 임종에 가까웠습니다. 사제와 신자들이 대세를 주기 위해 그 집에 모이자 임종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나는 오래 전부터 가톨릭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전례의 경건성과 엄숙함, 가톨릭 신자들의 올바른 품성들, 그리고 수도생이들이 아니라 잔잔함 속에 미소를 잃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들이기에 무척 호감을 갖고 가톨릭을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나 스스로 천주교를 찾기에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은 인정하지만—어렵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니다. 이때 누군가가 나를 부추겨 주었다면, 이때 누군가가 나를 인도했다면 지금 나는 아주 기쁘게 아주 행복하게 임종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야속했습니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게을러도 보통 게으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전교활동에 관심을 적게 쓰는 공동체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니다.” 임종을 앞둔 이분은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못내 서운함과 섭섭함을 토로했다는 실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구는 성지가 많은 교구이며 한국 최초 방인자치교구요 신앙의 후예들로 뭉친 교구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전주교구 공동체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움은 우리 모두가 열렬한 복음전파자가 될 때 유지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제가 광주가톨릭대학에서 면접할 때의 일입니다. 학장신부님께서 “왜 사제가 될려 하는고?” 라고 질문하실 때 “미사를 집전하고 성사를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씀드리자 갑자기 책상을 여러 번 두드리면서 사제의 본연의 임무도 모르면서 무슨 소명의식으로 이곳에 왔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사제란 복음전파자이다. 말씀을 전교하기 위해 사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전파자입니다. 임종자의 서운함과 섭섭함을 우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천주교로 일찍 인도했다면”—이 말씀은 우리의 전교사명을 더욱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명

땀 흘리는 삶

최 형(요아킴)/노송 성당

우리는 보다 잘 살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더욱 잘못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한결 약삭빨라지고 한결 험악스러져가 있다. 저마다 움켜쥔 돈주머니들의 부피도 서로 비교조차 안 만큼, 호박덩이와 깨알과의 시늉이 되어버렸다. 왜 그런가 이른바 ‘빈부의 격차’가 ‘경쟁 성장의 별 수 없는 그림자’라 그런 자본주의 논리가 접어두고라도, 엄청난 격차의 근본 원인 한마디로 말해서 ‘땀 흘리는 삶’을 외면하는 데 있다.

제 스스로 이마에 흘리는 땀으로(그것이 육체노동이든 정 노동이든)제 먹이를 얻어누림이 하늘의 뜻인데, 그래서 ‘일하잖거든 먹지 말라’는 성서의 말씀이신데, 불행하게도 문제 일하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잘 사는 것 제 천복(天福)이라고 믿는 데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과거의 ‘양반’ 역사가 편안하게 놀고 먹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던 만큼, 천복 타령의 그 뿌리는 더 깊어져 오늘날까지도 노동 천시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로 다같이 떨쳐 일어나 잘 살아보자고 분발한 저 ‘새마을 운동’ 시절에조차 ‘공순이’니 ‘차순이’니 하는 따위의 말들 널리 퍼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금가락지 빛나는 부류일수록 기름때 묻은 옷이나 흠손발을 아직도 창피스러워 한다. 누군가 한국에는 ‘노동 정신(에토스)조차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한 것 정곡을 찌른 말이다.

우리는 일하는 그것이 그저 돈벌이의 ‘수단’일 뿐, 일하는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쉽게 말해서 일하 재미, 일하는 즐거움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노동)이란 본질적으로 모든 생명체의 건강한 생유지를 위한 활동인 것이다. 그런 활동이 잘못 빛나가서 불소득을 위한 설침이 될 때, 그 생명체는 뿌리에서부터 병들고 병든 생명체로 구성된 사회는 타락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흘리는 삶의 또다른 그들은 더욱 짙어진다. 여기에는 노동 정신 문제를 떠나서 일하는 것이 재미나 즐거움보다는 고달픔과 로움이 된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 거듭 분명한 것은, 놀 먹는 불로소득이 클수록 그에 정비례해서 억울하게 고달프 피로운 비지땀도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어두운 이치를 세상이 어둡게 시끄러울수록 더 한 되새겨본다. 그리고 땀 흘리는 삶 그것이 오늘날의 도덕적 락이나 설치는 이기심도 극복하는 그 기본일 것임이 새삼스럽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네가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다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주셨다. 나야말로 네 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네 시체와 불레셋 전군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모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1사무 17, 45-46)



늘어나는 냉담자 (영세자-냉담자=?)

냉담자란?

격한 의미에서 '냉담자란?' 하는 질문의 대답은 복잡해진다. 그러나 이 글에서의 '냉담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의미에서의 냉담자, 즉 성교사규에 실한 사람을 지칭한다. 그 성교사규(聖敎四規)란과 같다.

주일을 거룩히 지낼 것.
단식 금육재를 지킬 것.
일 년에 적어도 1번 이상 고백성사와 영성체를 할 것.

혼인법을 지킬 것.
중 특별히 세번씩 규칙을 어기고 3년 이상 성사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보통 비수계자라고 교적에 기록한다. 또 9년 이상 비수계자는 따로 교적을 관리한다. 이 비수계자 중에서 교적은 있으나 사람이 없는 '행방불명' 혼배법에 저촉되어 성사를 못 보는 '조당', 그리고 사람도 있고 교적도 있는데 성사를 못하는 사람을 '냉담자'로 기록된다.

II. 천주교 전주교구 비수계자 현황

표1) 천주교 전주교구 신자현황(1985~1989. 12. 31)

도	남자 신도수	여자 신도수	계	세대수	9년이상 비수계자	합계
85	32,418	45,485	77,903	24,839	9,512	87,415
86	34,599	48,939	83,538	27,230	9,566	93,104
87	36,114	51,547	87,661	28,551	11,032	98,693
88	37,511	54,442	91,953	30,958	11,263	103,227
89	38,581	57,124	95,705	33,334	11,908	107,613

표에서 보는 것처럼 약 11만 교우 중 제대로 성사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려 89년 말 현재 2만 3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왜 성사생활을 못하고 있는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9년 이내 비수계자 현황 (1985~1989)(9년 이내 파악할 수 없다)

도	행방불명	냉담	조당	계
985	1,956	7,815	940	10,711
986	2,276	949	6,434	9,661
987	2,461	6,127	1,005	9,593
988	2,746	6,713	1,105	10,504
989	3,128	7,024	1,132	11,284

표2)에 나타난 비수계자들 중 '행방불명'이나 '조당'에 해당하는 비수계자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해보기로 하고 비수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냉담자에 대해 본다.

III. 왜 냉담하는가?

냉담의 요인은 참으로 다양하다. 첫째, 사생활의 문란이 냉담을 가져온다. 어느 본당이 초상 집에서 들은 얘기가. 한 번은 어느 초상집에 연도를 바치러 갔는데 어떤 분이 남자를 소개시키며 '이 사람이 신자인데 지금 냉담입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성당에 다시 나오



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분은 내뱉듯이 '큰 집에 가면 큰 부인이 반겨주고 작은 집에 가면 작은 부인이 반겨주는데 내가 왜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성당에 다시 다니겠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정말 부인을 들썩이나 데리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끝내 신앙마저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둘째, 외인집으로 결혼을 하므로 냉담하는 경우도 많다. 시어머니의 반대로 때로는 남편의 반대로 냉담하게 된다. 셋째, 성직자나 수도자와의 불편한 관계에서 오는 냉담도 무시 못한다. "그 신부(수녀), 떠나기 전에는 성당 안 나간다!"고 토라져 있는 교우도 왕왕 만난다. "하느님 믿으려 성당가지 사람보고 성당 가나?" 하며 아무리 달래도 막힌 가슴 뚫리지 않는 모양이다. 기타 사업의 실패, 극도의 가난, 잦은 이사, 동료 신도들과의 불화, 취미생활, 지리적 조건 등 천차만별이다.

〈표3〉 참고, 신자들이 주일미사를 결하는 이유

1. 직장이나 생계문제 때문에 25%
2. 취미·사교·여가 때문에 20%
3. 미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5%
4. 성직자나 신자가 불쾌하기 때문에 2%
5. 공소예절에 참여하기 때문에 3%
6. 성당이 멀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5%
7. 집안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2.6%
8.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13%
9. 기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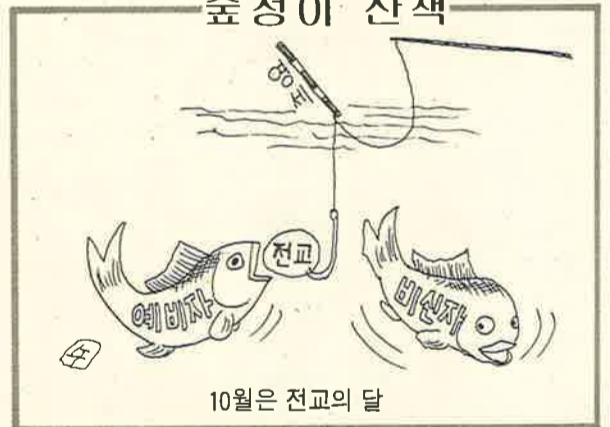
(한국천주교회 2백주년 기념 사목회의 자료)

IV. 냉담 해소를 위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냉담자들의 회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위한 특별한 '사목적 배려'일 것이다.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듯 사제와 수녀들의 애정어린 방문이 최선의 약이라. 하지만 신자는 많고 사제는 적고... 평신도들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레지오 마리아, 전교회 등 각종 신심단체들의 냉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냉담자들을 회두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초 공동체(반모임, 구역모임)의 활성화이다. 날로 비대해져가는 교회의 사활(死活)이 반모임의 성패(成敗)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냉담의 가장 원초적인 요인은 '소외감'이다. 교회의 말단까지 조직화되어 서로 돕고 나누며 산다면 그 본당은 반석 위의 집이 되겠지만, 의무적 주일미사 참례로써 사목적 배려가 끝나는 본당은 모래위의 집처럼 흔들거릴 것이다. 각각의 세포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한 법이다. 교회는 어차피 '일치와 나눔의 공동체'일 때 그 본래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다. 신자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 본당, 우리 식구'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때 그만큼 냉담이 줄어든다. 큰 기대를 안고 성당에 왔다가 맥없이 돌아서는 슬픈 발걸음들에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여호와와의 증인'이나 '통일교' 등 비교교인간적 관계가 깊은 신종종교에서 오히려 만족을 얻는 형제들—누구의 책임일까? 우리는 그간 '우리 천주교인은 냉담을 할지언정 절대 다른 교파로 가진 않는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꼭 돌아오고야 만다'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이 궁지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 그러한 증거는 우리가 신자 100만도 안되었을 때나 갖을 수 있었다.

가난하다고, 또 못 배웠다고 소외시키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가난한 자들의 교회이기에 가능했다. 새로 입교 영세하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를 떠나 냉담하는 사람도 많다. 내 주위 어떤 사람들이 왜 냉담하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정에 맞게 권면해야 한다. 그 누가 우리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채 교회를 떠난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자기 영혼 자기가 구해야지' 하는 말은 철저한 이기주의적 변명이다. 늘어나는 냉담자, 이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순정이 산책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수시모집·해외연수생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3-2496.2-8653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최영자(헬레나)
☎6-6951
등서관통로 신탁은행 앞

개업
벌보네 우동·만두
전주 덕진점
한가브리엘(의수)
천사바나(영희)
전북대 정문앞
☎74-2524
주문 배달합니다.

신부 부케 전문점
진선미꽃집
이마리아
범디도
☎84-2628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숙녀화 | 총판매장(공장직영)
아동화·특수화
김문식(베드로)
☎82-3118
봉남문·조각·송악국 시거리

해외여행
(성지순례·신혼여행)
고려관광
이종길(요한)
☎87-9797
(기린로 병문정 시거리)

은하체육관(태권도)
주소: 서원산동 1가 201번지
효자주공 APT 3단지영
전화: 83-6482
관장: 김기남(바오로)
이난영(헬레나)

사진재료·비디오 촬영
유일칼라사진관
☎83-1949. 84-9740
전동성당 앞
유영문(가레타노)

라인인테리어
실내·외 장식 디자인
구원(요한)
구만석(토마스)
구홍주(노렌조)
이리시 마들 시거리
☎(0653) 856-1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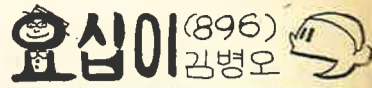
사원모집
당사는 통신기기용 전원 부품
수출업체로서 근면하고 창의력
을 겸비한 사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생산직 여사원
• 모집인원: 00명
• 자격: 학력제한없음
만16세이상 35세미만
*야간학교 입학예정자, 장애 및
농아자, 초보자 환영
•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각1통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알·에프·하이텍
전주시 금암동 1556-3
☎5-3697

전화·국번경·안내
백운전자
방송시설, 비디오촬영 전문
백정수(리노)
이준남(테레사)
전주시민약국 옆
☎252-0231

한국외방선교수녀회성소포정
일시: 10. 13(토) 오후 4시~14(일) 오후 5시 1박 2일
장소: 부산유류대 뱀다린 피정의 집
대상: 수도생활과 선교에 관심있는 고졸이상의 미혼여성
준비물: 미사, 필기도구 취미: 5,000원
신청: 10. 10일까지 전화로
문의: 051) 67-8237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 1동 878-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박동공예·유리공예·양초·하와이캔들
공예분재·아트플러워·입평가다
이종인공예교실
관동로 월드컵 시거리 송이대방 2층
☎사 81-0036, 자 72-0167
이종인(디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하는 믿음



“야훼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시편 119, 33. 105).

2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왔다. 그 말씀은 힘이 있고 쌍날칼처럼 예리하기에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야 만다. 바로 그 말씀에 매혹되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우리 가까이 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라며 고개 숙이는 전동 성당 재정분과위원장 이덕수 형제님!

그의 집안은 열심한 불교 가정 이었고 그는 7남3녀 중 장남, 집안의 기둥으로 부모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때까지 뚜렷한 일자리 없이 지내오던 그에게 부모님마저 갑자기 돌아



가시게 되어 가세는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태에서 부인은 남몰래 성당 교리반에 다니게 되었고 영세를 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세례를 받게 했다. 이 사실을 후에 알게 된 그는 노발대발했고 성당에 나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했다.

고상을 던지고 성화액자를 깨뜨리며 이혼하자고 부인을 위협했다. 그러나 반대가 심할수록 부인의 신앙은 더욱 깊어만 갔다. 오직 기도와 침묵으로 견디어냈고 희생적인 자세로 남편, 아이들, 시동생들까지 뒷바라지를 했다. 그리고 성화액자를 다시 걸고 십자가도 새로 마련했다. (그때 부

러졌던 고상이 아직도 집안에 걸려 있다. 산 증인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에 감동이 된 어느 날, 그는 부인 몰래 성당엘 가보기로 했다. “도대체 성당이란 곳이 무엇하는 곳인가?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하고 궁금해졌다. 그가 성당에 갔을 때는 마침 신부님의 강론중이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무엇인가 마음에 와 닿았다. 그래서 그 다음



이 덕 수(유스티노)/전동 성당

주일에 다시 가서 강론을 들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그후 부인의 신앙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미 신앙의 빛이 마음 깊숙히 들어왔기에 부인이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게 되었다. 차츰 주일신부와의 만남을 갖게 되었고 드디어 76년 12월 20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제 그는 삶 안에서 늘 동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봉사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그의 귀를 울렸기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부인의 모범적인 행동이 없었던들 오늘의 평화가 있을 수 없으리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평화를 느낀다.



창인동 성당 이리공소라는 이름으로 시작

이리에 천주교가 자리를 잡은 것은 이 지역 사정으로 보아 매우 늦은 1930년대였다.

기록상으로 보면 1925년 또는 26년 이전에는 교구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원래 '솔리'로 불리우며 한적한 농촌이었던 이리가 시가지로 발전한 것은 일제의 동양척식회사가 설립되고서부터다. 서해안이 개간되고 금남평야의 드넓은 옥답에 수리시설이 갖춰지면서 이리가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런데다가 철도가 놓여 전북교통의 요지로 둔갑하며 대도시의 골격이 갖춰진 것이다.

20년대 중반에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이리교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된다. 김방지거(창언, 초대 이리지방회장)와 손 요셉(덕로) 등 5~6인이 이리에서 5리쯤 떨어진 새실공소(전주교회 소속)에서 주년성사를 받으면서 뿌리가 내려지게 된다. 교우들이 차츰 늘자 1931년 가을 전주 감독대리 김양홍 신부가 첫



판공을 치루어 공소로서의 면목이 서게 된다.

1932년 군산교회 이리공소로 되면서 담임 김베드로(영구) 신부가 본당설립을 위해 활약을 시작했다.

당시 전주 전동 설립에 많은 회사를 했던 이춘화 씨가 주현동에 토지 4백30평을 내놓아 성당 신축에 들어갔다.

1934년 2월 8일 성당이 준공되고 포교소로서의 수속을 끝냈다.

1935년 6월 본당으로 승격되고 하요셉(한주) 신부가 초대 담임으로 부임했다.

그해 11월 5일 성당과 부속건물이 완비되어 새본당의 축하와 신부 축하식을 하였다.

4대 담임인 이 도밍고(기순)

신부는 성당이 변두리임을 유감으로 여겨 중앙지인 북창동에 부지 2천평을 매수 새성당 신축 준비에 들어갔다. 1954년에 착공, 이듬해 12월 18일 1백62평의 큰 성당을 준공하고 예수성심계 봉헌,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구소식

1. 군인주일 2차헌금: 오늘 10월 7일
2. 사무감사: 10월(수) 오전10시-용안, 금마, 오후2시-영등동, 금암. 11일(목) 오전10시-황동, 함열, 오후2시-중앙, 송학.
3. 교구 사진동우회: 14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집결. 장소-미리내.
4. 사회복지회 월례미사: 8일 오전10시30분 교구청 별관1층.
5. 중·고 학생 종합 예술제: 10월14일(일) 오전10시~오후5시. 장소-해성고 내용-성가경연대회(전성가, 가톨릭성가 부문), 성시낭송대회, 생활성이 발표회(좋은 성가 부르기회-김정식), 놀이마당, 생활성가. * 일일완료 9시30분(점심지참).
6. 성서 연수회: 10월14일 10시 가톨릭센터 강당, 강사-김재원 회장, 내용-신구약성서 전체 및 장별 개요, 회비-2천원.
7. 착한목자수녀회 성소피정: 10월 13일(토) 오후6시-14일(일) 오후5시, 곳-성글라라 봉쇄수녀회(0653)52-6813. 준비물-미사·세면도구, 회비-오천원, 신청(02)463-8055.
8. 성령선교수녀회 성소피정: 10월13일 오후4시-14일 오후6시 본원(02)764-4750.
9. 오순절 평화의 수도회 성소자 모집(남·녀): 초대교회 정신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삶. 부산(051)69-2016, 삼랑진(0527)52-4241, 서울(02)774-8025

※ 축! 영명: 13일(성에드워드) 김의철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쓰레기 예쁘게 버립시다—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의 양은 가히 엄청납니다. 그중, 쓸만한 것도 많다는 청소년 아저씨의 얘기. 꼭 필요치 않은 것은 버리지만 분리해서 비닐봉지에 넣어 버리는 습관을 기릅시다. 작은 성의가 환경오염방지에 큰 몫을 함을 상기합시다.

킹 - 테크

안성태 (대리인)
활인자(우솔라)
전주시 고사동 1가 95
경전리사 한성여관 중간
☎ 84-2804

유 니 패 션

학생복·유니폼·단체복·전문업체
대표 구 자 균 (제노비오)
전주시 진북 2동 1154-17
(화성빌딩 2층 3호) 서신교 앞
☎ 72-4290

베 비 라

출산 준비물, 유아복 및 아동복
이명익 (대리인)
관동로 풍년제과 앞
☎ 83-3610

해버라기

해버라기레크리에이션

- 각단체 (직장·교회·학교) 모임·교육·행사의 레크리에이션 (노래·윺동·게임·포크댄스) 진행
- 야유회, 축제, 캠프, 공연프로그램 기획 및 출장지도
- 야외행사시 맵프 (500w) 대여 가능

실장: 박 용 화 (베드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공인지도자)
서노송동 가톨릭센터
☎ 85-4102
85-0041 (교육국)
☎ 201-7576

전 라 가 스

전차량무전기설치
보험가입으로 수용가보호업체
대표 정 순 민 (베드로)
☎ 86-1676, 86-4277
251-0117

군산둔용신용협동조합의 명칭이 군산대건신용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북 군산시 중앙로 2가 141-12
☎ (0654) 43-1212~4
FAX. 42-5108
1990. 10. 7
이사장 신 균

(유) 일신기업

석재, 건축자재일절
수출전문, 수출허가
(제 377881호)

대표이사 김 종 익 (아고노)
사무실: 전북 익산군 함열읍
남당리 761-81

전화 (0653) 861-7000
861-6060
862-1498
FAX (0653) 861-6666
농장 (0653) 862-1331
자택 (0653) 861-0049

샘물동우회(미원성당)가 보건사회부의 내인가를 받아
활티 탄산수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샘 물

좋은 생수는 직접 시음을
해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 85-4205
군산 64-4481
이리 52-5595

오랜 방황을 마치고

감꽃을 줬던 아이

이 중 호(디모테오) / 덕진 성당

감꽃을 줬던 아이는 감꽃이 왜 예쁜지는 몰랐지만 해질녘까지 감꽃을 소쿠리에 가득 담아 채곡 채곡 쌓아 두었습니다. 그날 밤, 봄밤에 소쩍새가 울던 한동네 나 이 많은 처녀가 죽는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며칠을 그 얘기만을 믿는 순한 아이였습니다. 일요일만 되면 그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찾아가곤 했던 초라한 시골교회는 예수라는 낯선 서양인(?)을 너리 속에 박아 놓았습니다.

26년 전 그 아이는 자라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친구들과 어울려 찾아가던 마리아교(?) 성당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빠롭니아..." 하고 드리는 미사에 낯을 잃었고 문답이 나 뛰니 될 것이 어찌 그리 많았

으며 무서운 신부님(故 김아오스당 주교)은 강론시간에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몇 번이고 말 씀하셨습니다. 그 길 잃은 양 한 마 리...

물경 20여 년 동안을 천주를 잊고 살아온 그 아이는 세상을 살면서 온갖 탐욕과 방황과 저버 린 양심을 부채질하면서 제멋대로 살아온게죠. 세월은 흘러 그 아이 나이 마흔이 넘었을 때 문득 존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 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죽음 의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했고 나 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천하고 나 약하며 어리석고 죄투성이며 하찮은, 지나가는 하루살이라는 것 을 깨닫게 된거죠. 양 백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면 목자는 아흔아홉 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나선다는 신부

님 그 강론을 생각해내곤 천주의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단 하나라도 하느님의 모든 보살핌과 관심과 기쁨의 대상임을 마음이 시리도록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불을 지피기 위해선 불씨 하나 면 족합니다. 망설임 필요없이 성당을 나가 기도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제가 당신을 생각치도 않을 때, 당신을 잊고 있을 때, 당신께 냉담할 때도, 당신은 제가 유다처럼 될지라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기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렸을 적 감꽃을 소쿠리에 담 듯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채곡 채곡 쌓아가면서 말입니다.

알고봅시다

엄마들을 위한 영화

'고백의 비밀' 상영

일시: 1990년 10월 22일(월) 오후 3시.
장소: 전주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회비: 1,000원 선착순 50명.
대상: 엄마, 아빠(일반 신자 포함)

작고 가난한 시골본당 주임신부 베르나르도, 그는 가난한 사제, 사랑 많은 사제였으나 썩어빠진 사형장에 홀로 우뚝 서 있다. 누가, 그를 그 엄청난 결과로 이끌었을까?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도 살인의 누명을 쓴 채 죽음의 끝에서 있는 베르나르도 신부. 하느님께서 신권으로 사제들에게 부여하신 고백성사에 따르는 비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감동의 영화. 교구 홍보국에서 마련합니다. 함께 자리해주세요.

고, 일반 신자들도 성서 공부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높은 곳에 장식품처럼 놓여 있던 성서가 우리 곁에 가까워지게 됨으로써 많은 신자들이 성서를 지참하고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다시 요즘엔 성서를 펼쳐 놓고 미사를 드리는 신자들을 찾아 보기가 힘들어졌다. 미사 때도 지참하지 않는 성서를, 집에서는 얼마나 읽을 것이며, 성서 공부를 받는 신자수는 과연 전체 신자수의 몇%나 될까? "신앙생활의 최고 규범이며, 신앙의 힘, 마음의 양식, 영신생활의 깨끗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힘과 능력을 간직한 성서를 교회의 자녀들이 친밀해지고 그 정신에 젖도록 해야 한다"고 공의회 문헌은

가르치고 있다. 이렇듯 갈수록 친숙해져야 할 성서가 다시 우리에게 점점 멀어지고 장식품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 기도서가 여러 기도를 하기 위한 안내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매일미사책도 전례를 잘 모르는 예비자들이나 평일미사에 활용하고, 주일미사 때만은 우리도 개신교 신자들처럼 자랑스럽게 성서를 가슴에 안고 미사에 참여해서, 성서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느껴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하느님 계시의 성서 말씀을 생활화하여 이웃에게 표양을 보임으로써, 하느님을 전하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하고 나 자신과 더불어 소망해본다.

신자들의 소리

주일미사와 성서

이 길 순(헬레나) / 금암 성당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주일미사를 드리려 갈 때마다, 손에 드는 책들이 줄어들어, 참 가볍고 편한 것 같다. 현대의 편리성을 타고 성서와 기도서 없이도,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매일미사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바쁘고 편리하게만 살려는 현대인들에게, 매일미사책의 출현은 좋은 호응을 얻어 거의 모든 성당과 신자들이 애용하고 있는 것 같다. 나 또한 얼마나 편하게 활용했던가?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엔 성서도 들지 않고 주님을 뵈러

가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웠던게 솔직한 나의 고백이다. 그러던 어느 날, 조그만 깨달음이 왔다. 일주일에 한 번 들고 가는 성서가 무겁고 번거롭게 생각된다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과연 얼마나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하느님 계시의 원천인 성서를 자주 읽고 성서 말씀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공의회 헌장의 가르침이 나오면서, 성서 연구가 활성화되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 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 회 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송 남

- 본당의 날 및 L·M옥의 행사: 14일 집결장소-전교교정 8시 출발 장소-미리내(새벽5시30분 미사만 있음. 어린이 주일미사 13일 토요일 오후3시).
- 사목회 상임위원회: 11일 저녁7시 김동주 씨택.
- 가정방문: 10일 오전-신우1반, 남노1반 오후-신우2반, 남노2반, 11일 오전-신우3반, 남노3반 오후-인후15·16반, 남노4반, 12일 오전-인후14반, 남노5반 오후-인후13반, 중노1가 12반.
- 모임: 꾸리아-오늘 오후2시, 율트레아-오늘 저녁8시, 부녀회 상임위원회-9일 어머니미사 후, 기도회-11일 저녁미사 후, ME: 2팀-10일 저녁8시 태기수 씨택, 배소라-8일 오전10시 교리실.
- 천사회 모임: 8일 오후6시 가톨릭센터 휴게실.
- 축! 결혼: 9일 12시 신랑-정민영 신부-김정아(세시리아).

*** 목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 후.
- 안나회·자모회: 11일 오전10시.
- 여성분과회: 13일 오전10시.
- 꾸리아: 14일 오후2시. 5. 요셉회: 14일 공식미사 후.
- 청년회: 14일 저녁미사 후.
- 에비자 교리: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신부님), 매주 일요일 오전9시(수녀님).
- 가정방문: 11일(태평동 5반), 12일(태평동 6반).
금주 전례: 해설-임은희 ① 김수영 ② 소매덕 봉헌-김수영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정현자 ① 신금식 ② 서 영 봉헌-진금식 씨 부부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 10월은 로사리오성월 및 전교의 달입니다.

- 꾸리아: 공식미사 후.
-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오늘).
- 오늘은 군인주일: 미사중 2차헌금.
- 성서읽기: 이사야51장~60장까지.
- 금주 전례: 해설-김정재 목사 ① 박귀철 ② 장영미 봉헌-오천규, 하태중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승복 목사 ① 유순천 ② 김금자 봉헌-강봉옥, 김병열 씨 부부.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전교의 달) 오늘은 군인주일(2차헌금 있음).

*** 회의:** ① 사목회-10월10일(수) 저녁미사 후 ② 자모회-10월 9일(화) 오전10시30분 ③ 성심회-10월13일(토) 오후2시.
*** 모임:** ① 전례부-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일일:** ① 가정방문-10월10일(수) 16반, 10월17일(수) 17반~20반.

***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군인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꽃 봉헌회 모임: 10월12일 금요일 오후3시(준비물: 마태오복음, 기도서)
- 에비자 교리를 적극 권장합니다: 교리시간 수요일 오후7시30분 직장인반, 금요일 오전10시30분 주부반, 토요일 오후5시 학생반.
- 베로니카회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청소봉사: 서완산동 2가 서편.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 종 총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성전보수 헌금바람.

- 재속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1시30분.
- 구역 봉사자 모임: 오늘 저녁7시30분.
- 나라를 위한 기도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7시30분.
- 성체장복 및 성체조배: 11일(목) 오전10시.
- 병자방문: 5일(금).
- 자모회: 다음주 오전10시.
-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 병 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환

* 10월은 전교의 달입니다.

- 구역장 쉼례회: 공식미사 후. 2. 구역형제회: 10일(수) 오전10시-5반, 10시30분-7반, 11시-9, 21반, 오후2시-2나반, 2시 30분-2다반, 3시-14반, 4시-26반. 11일(목) 오후2시-4반, 2시30분-6나반, 7시30분-1반, 8시-27, 28, 29반, 8시30분-8반, 12일(금) 오후7시30분-3반, 8시-10, 11반, 8시30분-13반.
-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금주 전례: 문치구, 강상근 복사-이봉연, 박병환 봉헌-신규연 부부
차주 전례: 문치구, 강상근 복사-이정분, 지동호 봉헌-신영배 부부
* 본당은 우리의 가정 교무금은 미루지 말고 봉헌합니다.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명 근

1.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김 태 환
사목회장 황 수 석

- 구역봉사자 모임: 10일 오전10시30분.
- 안나회: 오늘 11시미사 후.
- 율트레아: 다음주 11시미사 후.
- 건진교리: 매주 화요일 7시미사 후.
- 성서교실: 수요일 오후2시, 7시 교육반.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 사목회: 저녁미사 후. 2. 반석회, 요셉회: 공식미사 후.
- 성모회, 자모회: 12(금) 어머니 미사 후.
- 독배 공식미사: 12(금) 오후2:00 이서 공식미사: 12(금) 오후8:00.
- 성령 기도회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차주 모임: 율트레아.
금주 전례: 해설-박명래
차주 전례: 해설-강진상